

## 구청장 면담 요구 '전공노' 노조원들 광산구청 직원 2명 폭행

공무원들을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에서 탈퇴시키려는 구청의 방침에 항의하던 공무원 노조원들이 다른 구청 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다.

광주 광산경찰은 12일 공무원행방배 등의 혐의로 강모(56) 전(前) 전공노 광주본부장 등 1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청장 부속실에서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다 차모(51·5급) 총무팀장이 "간부회의가 끝나면 면담 가능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하자, 차씨 등 총무과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광산구청이 최근 부구청장 명의로 '전공노에 가입한 구청 직원에게 탈퇴서를 받으라'는 공문을 각 실·과에 하달한 것으로 관련. 강씨 등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구청장을 면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 등은 현재 모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광산구청은 "공문은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의거해 발송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인사 담당자·비서·경리직 등 노조가입이 금지된 사람들은 탈퇴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만 3세 성폭력 진술 인정 대법 "지능·표현능력 충분"

일정 수준 이상의 지능과 표현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3세 아동의 진술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통상 아동의 진술을 비논리적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 인정에 인색했던 법원 판결의 전향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2부는 12일 만 3년3개월인 친딸을 삼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성폭행 사실을 허위자백했다"며 낸 상고를 기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언 능력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기억에 따라 서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며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 및 심리평가 등을 받을 당시 진술 내용은 3세 수준에 맞게 그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고 표현도 유아 수준의 표현이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부인과 이혼한 뒤 홀로 만 3세인 딸과 만 1세인 아들을 키우다 형편이 어렵자 아이들을 위탁가정에 맡겼다.

아이들은 위탁 부모가 보는 앞에서 교도관 성폭행을 했고 이를 비정상적으로 판단한 위탁부모에 의해 성학대아동쉼터 치료를 받았다. 상담과정에서 오누이는 A씨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하나의 놀이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北 核실험 파장

르포 비상체제 돌입 광주 방사능측정소

# “필터에 방사능 묻었나” 초정밀 분석

북한의 핵 실험 이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방사능 유출 사태에 대비해 24시간 긴박하게 움직이는 곳이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환경 방사능을 감시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이하 KINS) 산하 광주지방방사능측정소.

12일 오전 10시, 전남대 자연대 1호관 뒤에 자리한 이 곳은 최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사능분석기가 가동되면서 평소보다 30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재물 소장(57·전남대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교수)과 마경주(여·32) 연구원이 하얀 종이를 건조 오븐기(Dry Oven)에서 재빨리 꺼낸다. 이날 아침 채취한 '필터 용지'(whatman filter paper)다. 종이에 스며든 습기를 없애기 위해

## 월1회 시료 채집, 핵실험후엔 '매일' 긴급상황 대비 자료 2분마다 전송

85도 온도에서 10분 동안 말린 것이다.

이어 '필터용지'는 전자저울에 올려져 무게가 파악된 뒤 곧바로 '회화기'(灰化機·시료 등 유기 물질을 태워서 재로 만드는 데 쓰는 기계)로 들어간다.

2시간 뒤 '회화기'에는 '필터용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회화기'에 남은 공기 부유물(浮遊物)이 채집됐다.

채집된 공기 부유물은 분석기인 '감마계측기'(HP-GE)를 통해 2만 초(약 5시간), 8만 초(약 22시간) 등 2단계로 나눠 분석과정을 거친다. 여기에서 나온 자료

▲공간감마선량률=공기 중에 존재하는 감마선의 세기. 단위는 마이크로 핀트겐(μR), 퀴리(Ci), 베크렐(Bq) 등을 쓴다. 우리나라의 환경방사선량률은 대략 시간당 5~30 μR 수준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iernet.kins.re.kr)에서 전국의 환경방사선량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매일 1회 시료를 채집·분석 하고,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차콜'(Charcoal)이란 고성능 필터도 설치했다.

측정 장비인 '공간감마선량률계'를 통해 15분에 한 번씩 전송되던 자료도 2분 간격으로 바뀌었다. 긴급상황에 대비, 전국 38개 측정소 간 비상연락망도 가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로 'Zr-95'(지르코늄-95), 'Ru-103'(루테튬-103), 'Ce-141'(세륨-141), 'Cs-137'(세슘-137) 등 4개의 핵종(核種) 원소를 분석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핵실험에 따른 방사능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소장은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함경북도와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방사선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INS 산하 지방 측정소는 광주를 비롯한 서울·부산·제주 등 12곳이 있으며, 영광·목포 등 26곳에는 무인측정소가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12일 오전 전남대 자연대 1호관 뒤에 있는 '광주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김재물 소장(오른쪽)과 마경주 연구원이 자동방사능측정장치인 '공간감마선량률계' 전광판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동료재소자 집단폭행 교도소서 축소”

### 목포에서... 중상피해 가족, 의혹 제기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한 20대 재소자와 재소자 가족들이 사건 이후 교도소 측이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목포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께 목포교도소에 복역중이던 재소자 김모(29·광주시 동구 지산동)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당해 체장 30%가

파괴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신씨는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간과 폐장 등이 훼손돼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가족 측은 "사건 당시 재소자 2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지만, 교도소 측이 쌍방 폭행사건으로 규정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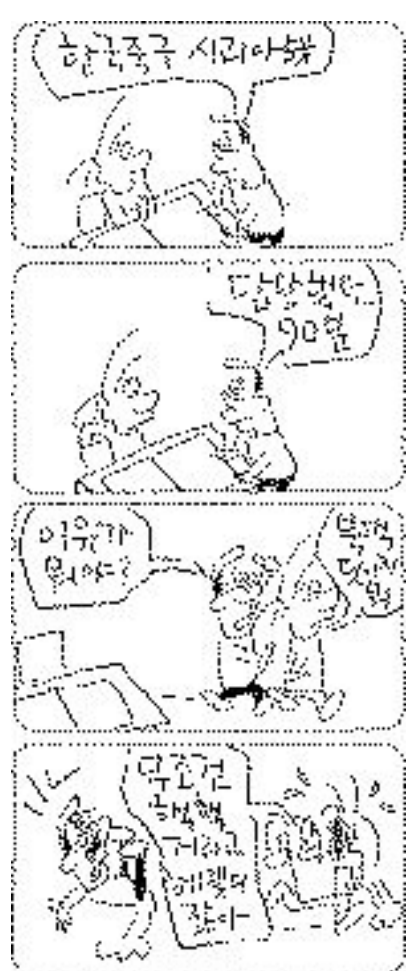
가족들은 "형집행정지를 내려 보호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교도소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처사"라며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일어난 폭행사건으로, 집단 폭행은 없었고 폭행 관련자를 검찰에 입건 송치할 방침이다"며 "형집행정지가 내려지지 않으면 교도소 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해자 김씨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피해자 신씨는 폭력행위 등의 죄로 징역 8년6개월형을 받아 수감중이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 나원침 (6948) 김홍두



뽕값 상품권 계산 거절당하자 행패

○...제과점에서 빵을 산 30대가 현금 대신 백화점 상품권으로 계산을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행패.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11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P 제과점에서 김모(32·광주시 북구 임동)씨가 빵 6천원어치를 산 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주고 거스름돈을 달라고 했지만, 종업원 정모(여·20)씨가 거절하자 바구니를 던지며 거칠게 항의한 것.

○...김씨는 경찰에서 "현금이 5천원 밖에 없어 상품권을 제시했는데 종업원이 너무 간간하게 나와 나도 모르게 화가 났다"고 진술.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2006 순천갯벌길 대축제  
Sundteonboy REEDS Festival 2006  
2006.10.14~22 / 장소: 순천자연생태과학관